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안동권씨 종친들



성화보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7월 21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각 성씨 문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인 이주영 제20대 국회부장을 비롯하여 이배용·권웅렬 명예회장, 공동대표인 조경태 국회의원, 정호성 집행위원장, 권건중 종중위원회실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동권씨 종친들은 권재국 고문, 권태복·권병돈 상임위원, 권영복 서울 지역종친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순호 매한공 종중 고문, 권기준 문경공 종중, 권필원 대사문화회 회장, 권순자 태시문화회 편집국장, 권영섭 화백, 권혁호 시인, 권용순 이사, 권정수 검교공파 서천공 종회 회장,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수웅 상임위원, 권태환·권순길 이사, 권행완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경주김씨, 전주이씨, 파평윤씨, 청주한씨, 해주오씨, 함안 조씨, 양천허씨, 평산신씨, 남양홍씨, 경주최씨 등 여러 성씨에서 참여하였다.

정호성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반국대는 15년이 걸렸고, 사찰은 8년이 걸렸다. 한국족보는 1476년에 제작된 안동권씨 성화보를 최초로 임진왜란 전에 9개 성씨의 족보가 확인된다. 등재 심사가 2년마다 개최되는데 족보는 2029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족보를 발굴하고 소재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고증하고 심의 평가를 해야 한다. 다섯째, 등재할 후보를 최종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독창성, 역사성, 희귀성, 비대체성 등을 중심으로 등록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위해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족보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 유산이 족보이다. 단순한 씨족사회를 넘어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 발전시켜야 할 유산이다. 공감대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인류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자.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혼신의 힘으로 꼭 성공시킬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맞춰 논리를 만들고 전략을 수립하여 족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배용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족보는 씨족의 계통 기록으로 자손이 수록대상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듯이 굳건한 뿌리의식은 가문의 역사를 뛰어넘어 우리 역사의 자긍심이기도 하다. 특히 사상사 여성사 등을 연구할 때 족보는 폭넓은 시각과 자료를 제공하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연구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한국의 족보가 현실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지가 등재 추진 중이다. 기록유산으로서의 족보를 등재한다고 하니 무엇보다 감사하고 무엇보다 힘이 난다. 지난 4월에는 제주4.3사건 관련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은 현재 20건이 등재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는 570건이 등재되어 있다. 물을 마실 때 우물 판 사람의 공을 잊지 말자. 선조들 덕분이다. 시적이 반이다. 인내와 끈기, 집념과 지혜를 가지고 한국의 족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자. 등재의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권웅렬 명예회장은 한국의 최초 족보는 550년 전에 만들어진 안동권씨 성화보이다. 대단한 기록물이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문중 대표들이 모여 여러 번 회의를 할 것인데 한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족보가 최고다. 우리 성씨가 최고다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서양은 아버지는 독일이고 조부는 이태리고 엄마는 영국이고 해서 족보를 만들 수가 없다. 7000년 전 선조들이 음각으로 암각화를 새겼다. 누가 살았나. 우리 겨레가 살았다. 문자가 없던 시절이라 그림을 그렸다. 훌륭한 문화민족이다. 서양은 경제대국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7000년 전 문화 살 수 없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다같이 화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지난 1월호 8면에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안동권문의 자랑인 성화보를 안동권문이 앞장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몇 개월 후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앞으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한국족보가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각 문중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각 문중 대표들의 협의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족보에 관심있는 사람끼리 결성한 단체다. 앞으로 각 문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동정

▲ 권영호 대종회 수석 부회장이자 대한철강(주) 회장이 지난 7월 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자서전 "도전과 열정 철강인생 50년"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권길상 (사)한국성씨연합 총재를 비롯하여 재부경남향우연합회, 각 기업체 사장, 안동권씨 종친회 임원, 산청군 향리 주민, 가족 친지 등 170여 명이 참석하여 출판회와 더불어 율해 팔순을 맞은 권영호 회장의 산수연을 축하하였다.



원장에 임명되었다. 권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 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근무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정과장과 금정국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로 꼽힌다. 1968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진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비서관실 행정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 권택윤 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장이 국제 농업 연구기관인 아프리카비어 연구소(AfricaRice) 아프리카 쌀 센터(Africa Rice Centre) 이사회(Board)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권 국장이 작년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의 첫 한국인 농업 컨설턴트로 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임명으로 권 전 국장은 큰 기쁨과 사명감과 함께 농업과 식량 안보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껴 앞으로 3년 동안 아프리카의 비 과확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권 대표는 45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산업 분야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하수도, 수자원, 도로 사업 등에 이바지했다. 국제그룹 (주)국제종합건설 해외건설본부 공무 설계업무(8년), (주)삼주건설 기술단 엔지니어링 사업설계업무(22년), (주)녹색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 설계업무(14년)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2019년 국무총리 표창, 2021년 대한민국 기술혁신 대상, 2022년 대한민국 4차 산업 리더 기업 대상 등을 받았다.

▲ 권혁상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2025년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교수는 대사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와 임상 등 전 국민의 비만 예방 및 관리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혁상 교수는 비만, 당뇨병, 대사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임상사이면서 연구자 및 교수로서 국민의 비만 예방 및 치료분야에 공헌해 오고 있다. 2015-2018년 4년간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직을 역임했다.



권주무관은 제14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권 주무관은 2013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2021년부터 규제개혁팀에서 근무하며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관련 규제 개선,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중소기업 공공조달 전문기관 검사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했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권 주무관은 지난해 5월 지방규제혁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위

방헌(芳軒) 권태정 종보편집위원장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 특선

방헌(芳軒) 권태정 종보편집위원장이 제23회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 행로서 부문에서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전시회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개최되었다. 내용은 당나라 시대 시인이자 서예가로 초성(草聖)이라고 불리었던 장욱(張旭, 675~750 추정)의 고서 4점 중 하나를 행초서로 썼다. 장욱은 술을 마시면 자기 머리털에 먹물을 묻혀 미친 듯이 붓을 휘둘렀던 광초(狂草)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욱은 요즘 서예인들이 행사장에서 큰 붓에 먹물을 묻히고 붓을 휘둘러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방헌 권태정 종보편집위원장은 10여년 전부터 붓글씨에 푹 빠져 드디어 국전에서 특선으로 입선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건우 서예가 전시회

권건우 서예가가 5월 28일에서 6월 3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서예 전시회를 개최했다. 권건우 서예가는 안국문화원에서 문하생들에게 서예를 지도하고 있으며,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대표이자 AI전문가로서 인사동 수운회관 13층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AI활용에 관한 무료강좌를 열고 있다. 수강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권건우 대표는 지난 35년 동안 태극권과 서예를 취미로 운동과 예술을 탐구해 왔고, 직업으로서는 삼성SDS 출신으로서 최첨단의 AI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AI전문지식을 전파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홈페이지 www.dygroup.co.kr | 대표번호 02-3472-591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5층